

현대불교

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산채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홈페이지 : www.sanchon.com



불자장군 마라톤 전역식

한 불자 장군이 36년 군 생활을 마감하는 날 36km 마라톤을 완주하는 행사를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전인규 준장(국방부 개혁위원회 신국방추진단장).

이달 31일자로 정년 예정하는 전 장군은 육사 27기를 상징하는 27일에 군 생활이 처음 시작된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마지막 지휘관으로 근무했던 경기 포천 소재 6공병여단의 전역행사장까지 36km 거리를 마라톤으로 달려가 전역식을 한다.

전 장군은 이번 마라톤을 체력단련이 아닌 수행 차원에서 계획했다고 밝혔다. 수행을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며 포교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 장군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대대장 근무를 하던 1983년 이었다. 당시 한 불자 중대장이 법당에 한 번 나오라고 권유해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전 장군은 육군 39사단 법당 건립, 원주 구룡사 진입도로 포장, 치악산 상원사 조각 건립 관련 부속물 헬기 이동 지원, 원주 칠봉암 조각 및 진입도로 포장 등 각종 불사를 지원하며 자연스레 신심이 깊어졌다.

특히 92년 대구 팔공산 성전암에서 철옹스님으로부터 불교 교리와 무술을 배우면서 불교에 심취했다. 전 장군의 불심은 아내와 아들 2명도 불자로 이끌었다.

전 장군의 마라톤은 27일로 끝나지 않는다. 3월 초 서울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 원공(圓空) 스님이 해인선을 따라 전국을 일주하는 '국토사랑 및 북한 어린이 돕기 2천km 국토순례단'에도 참여한다. 또 전역 당일인 31일자로 예비역 불자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예비역 불자와 현역 불자들의 신행활동 지원에 나선다. 전 장군의 '포교 마라톤'은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다. 남동우 기자

북한산을 두번 죽이지 말라

일부구간 공사 진행... '전면 백지화' 空約 우려

인수위, "5·6공구 공사중단 대안노선 필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북한산 관통도로·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통과 전면 백지화 공약이 '백지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일부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무현 당선자에게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불암산 지역(5·6공구) 공사 중단과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안노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해 대안 노선 성사 가능성이 열렸다.

현재 북한산 관통도로는 수락산 구간(5공구)인 의정부시 장암동, 불암산 구간(6공구)인 서울시 상계동·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방면 공사가, 경부고속철도는 양산시 법기리와 부산 노포동 일대 공사가 계속되는 등 건교부의 당초 방

침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합회의는 건설교통부의 노선조사 위 3개월 연장 입장에 대해 "지난해 노선조사위에서 시행자와 정부측은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5·6공구 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선조사위 활동은 새 노선에 대한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하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노선조사위 3개월 연장은 시간끌기식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또 5·6공구 공사 즉각 중단과 국립총리실 산하에 민·관이 공동참여해 백지화 상태에서 대안노선을 검토하는 (가칭) '민관합동대안노선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현재 연합회의 등은 국립공원 외곽부를 통과해 의정부 북쪽을 우회하는 노선(1안), 1안보다 더 북쪽에서 의정부 북쪽을 우회하는 노선(2안), 국립공원 북쪽을 우회하고 의정부 회통천을 지나 남부순환도로(국도 3호선)를 통과해 수락산 북쪽을 우회하는 노선(3안) 등 3개의 대안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미희·남동우 기자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서울 일광사는 전국 370여 독거노인·소년소녀 가구에 매달 20kg 쌀을 전달한다. 17일 일광사 주지 보혜스님과 신도들이 쌀을 앞두고 쌀을 모으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인허당 택호선사 13일 입적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유훈



오대산 월정사 회주 인허당 택호(老豪)선사가 13일 오전 7시 30분 '게으르지

15일 월정사 서별당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스님을 비롯 수덕사주지 법장, 관음사 주지 종하, 직지사 주지 자광, 대흥사 주지 도형, 신흥사 주지 마근, 종회의원 법등 현을 세영 스님과 합중한 전 한나라당 불자회장, 최흥집 강원도청 관광문화환경국장, 여익구 민주당 불교특위 부위원장, 권혁승 평창군수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영결식에 이어 일주문 근처에서 전통법식에 따라 인허스님의 직멸상을 보이는 다비의식이 거행됐다. <관객사 5면>

김원우 기자

말고 정진하라"라는 유훈을 상좌인 무이스님과 대중에게 남기고 방산굴(山窟)에서 육신의 옷을 벗었다. 세수 87세, 법랍 64세. 인허스님은 '새매가 서 있고 뱀이 누워있는 형세가 쉬지 않으니五千(오천)의 문자가 귀신을 근심하게 하는구나! 공자의 십대제자들이 어찌 이 뜻을 알 수 있으리오! 귀고리한 호승(胡僧, 달마대사)이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는구나. 以字(이재)는 새매가 서 있는 것이요.八字(팔자)는 뱀이 누워있는 것이니, 스승(금인)은 이것을 준칙으로 삼으라'는 열반계를 남겼다.

인도 우타 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 불교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공간이 건립되고 법문테이프 등 불교기초교재가 보급된다. 또 불가촉천민을 중심으로 경제자립운동을 전개하는 불교단체에 대한 점진적 지원과 석가족을 중심으로 한 학교, 법당 시설 건립 지원도 지속된다.

학교·법당건립 계속

재가연대 올 사업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이날 정대스님의 사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중앙총회에서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혁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문광부와 논의키로

문화재청의 위상강화와 함께 문화유산보존기금 설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유산청으로의 위상강화와 문화유산보존기금의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며 "추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

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의 한 정책임당지는 "불교계 뿐만 아니라 문화계 쪽에서도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이 두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며 "조만간 인수위원회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opia.com

정대총무원장 15일 사퇴

조계종 중앙선관위, 선거일정 21일 확정

선용스님 직무대행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15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차기 총무원

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섰다. <관련 기사 및 인터뷰 3면>

정대스님은 15일 오전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총무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16일 오후 총무원 청사 앞에서 종무원들과의 환송식을 끝으로 지난 3년간 총무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정대스님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당초 24일 사퇴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종회의원들이 (총무원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날짜를 앞당겼다"며 "동반 여러 가지로 도와 준 종회의원 스님들과 분발사 주지스님, 종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정대스님이 총무원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차기 총무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총무부장 선

용스님이 총무원장직을 대신 수행하게 됐다.

한편,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중앙총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총무원장 선거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이날 정대스님의 사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중앙총회에서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혁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기야신 법보종찰 해인시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 만을 생각합니다.



鐘宗社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011)266-8639

중량 3,300관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남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이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남골당